

# 궁핍과 혼돈의 '백화제방' 시대

## '출협' 탄생 전후의 출판계 (1945~1948) ①

### '임금보다 쌀을 주오'

해방 이듬해 봄인 1946년 3월 20일 오후 6시, 각 인쇄공장의 직공들로 조직된 조선출판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는 12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식량대책협의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우리가 지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자기의 욕망 때문만이 아니다. 식량난으로 가두에 방황하는 부모처자를 생활난으로부터 건지려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에게 시급히 식량을 주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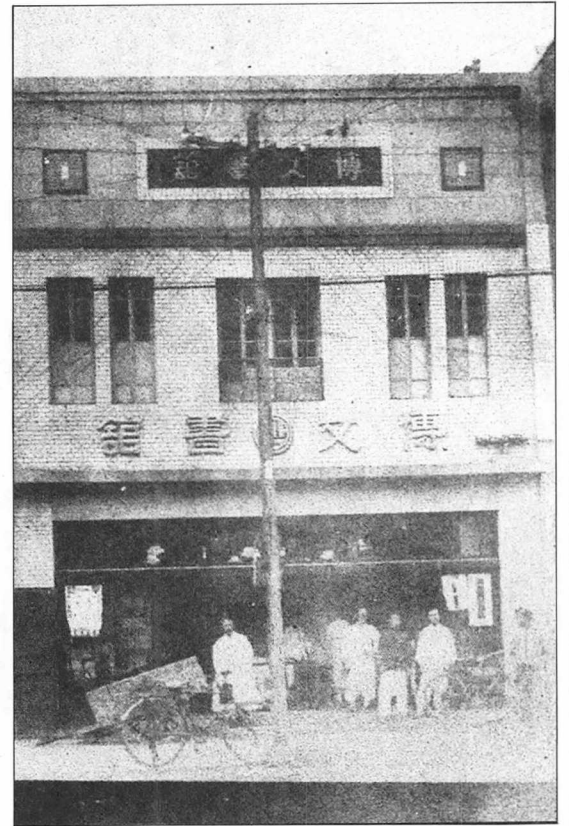
이들은 출판노조 안에 식량대책위원회를 두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전조합원의 식량대책에 "전력을 쏟기로" 결의한다. 이날의 모임을 <출판노동조합의 부르짖음-임금보다 쌀을 주오>라는 처절한 제목을 달아 2단으로 보도한 <동아일보>(1946. 3. 22일자)는 같은 기사에서 이렇게 부연하고 있다.

"날로 올라만 가는 물가에 극도로 생활의 위협을 받는 시민은 지금 신경질을 일으키게까지 되었다. 더욱 조국광복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땀을 흘리는 근로대중의 노고야말로 필설로써 표현할 수 없다."

이렇듯 각박한 상황에서도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가장 먼저 활기를 띤 분야는 언론·출판계였다. 특히 신문계에는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등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세가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이들은 뒤이어 나온 <민중일보>(장도빈)·<자유신문>(정인익 등)·<대동신문>(이종영) 등과 종전의 '매일신보'를 교체, 재출발한 <서울신문>, 그리고 왕년의 양

**'태초에 혼돈'만이 있던 출판업계의 조직화를 위한 첫 봉화는 해방 4개월후인 45년 12월에 울렸다. 그러나 '출협'이 정식으로 출범하기까지는 아직 1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한창때엔 영창서관·덕흥서관과 더불어 종로거리의 3대 서점으로 이름을 드날렸던 박문서관과 한국 근대출판사상 천연한 금자탑을 쌓아올린 한성도서(주)의 이창익 사장.



대 민족지로서 그해 11월 23일과 12월 1일에 각각 복간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우익지와 첨예하게 맞섰다. 그러나 숫적으로 우세한 좌익지들이 언론계를 압도하는 형국이었다(최준; <한국신문사>). 출판계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 가장 먼저 활기만 언론·출판계

미 군정당국은 해방 직후인 9월 11일, 일제 시대에 출판활동을 옥죄는 데 이용됐던 악명 높은 <출판법>과 <치안유지법>을 폐지하고, 그해 10월 30일자로 군정법령 제19호를 공포, 출판사와 인쇄소 등록제를 실시했다.

"언론자유와 출판자유를 유지보호하고 불법 또는 파괴목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위 38도 이남 조선에서 천연인이나 법인이 담당·소유·지도·지배 또는 처리하는 서적·소책자·신문 또는 기타 독물(讀物)의 인쇄에 종사하는 기관을 등기하라 자

에 명함. 여사한 등기는 본령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건(新件)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발행전 10일 이내에 완료하되 등기서류는..."(제5조)

이 법령에 따라 각종 신문·잡지가 우후죽순처럼 촉출(簇出)하는 가운데 그해 연말까지 공보국에 등록된 출판사는 49개. 서울신문사·자유신문사 등의 출판부까지 합치면 60여개에 이르렀다. 그중 맨먼저 출판계 재건에 나선 것은 박문서관(이응규)·한성도서(이창익)·정음사(최영해)·동광당서점(이정래)을 비롯, 새로 등장한 고려문화사(유명한)·을유문화사(민병도)·계몽구락부(신정연) 등이었다. 여기에 건설출판사(조벽암)·인민사(강대옥)·노동사(이민) 등 좌파도 한몫 거들었다.

그중에도 박문서관과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일제 암흑기 민족출판을 지탱해온 양대 기둥이었다. 1907년 노익형(盧益亨, 1884-1940)에 의해 창립된 박문서관은 출판사와 서점이 미분화상태였던 시기에 많은 고소설류와 신소설·번안소설을 박아냈으며, 한창 때에는 영창서관·덕흥서관과 더불어 종로거리(2가)의 3대 서점으로 이름을 날렸다. 1930년대 들어 비로소 각종 교양·학술·문학도서 출판에 힘을 쏟아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노익형의 사후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출신인 그의 아들 노성석(盧聖錫, 1914-1946)이 가업을 이어 <박문문고>와 함께 특히 한국문학사에 남는 문학작품들을 많이 출판했다. 해방후 3대 사장이 된 이응규(李應奎, 1910-1996)는 노성석의 경성제대 동창.

한성도서는 박문서관과는 달리, 1920년 황해도의 토지자본을 바탕으로 장도빈 이창익 이종준 한규상 등 4명의 해외유학과 지식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적으로 주식을 공모, 창립한 최초의 주식회사형태 출판사였다. 한성도서는 출판·인쇄·서점의 삼위일체로 운영되면서 <서울> <학생계> <학등(學燈)> 등 잡지를 발간하는 한편, 세계문학과 위인전기 외에 국내 소설·시집·기행문 등 문예물과 인문교양서를 술하게 펴냄으로써 우리 출판사상 천연한 금자탑을 쌓았다. 해방 당시의 사장(제3대) 이창익(李昌翼, 1901-1955)은 실질적인 창업주였던 황해도 서흥의 만석꾼 이봉하(李鳳夏·초대 사장)의 아들로 서울 제1고보(경기고)와 동경릿교대(立教大) 출신의 준재였다(줄고, '출판계 인물열전', <출판문화> 1993. 8~12)

이밖에 정음사는 다 아다시피 1928년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가 창립한 노포, 사장 최영해(崔映海, 1914-1981)는 외솔의 장남으로 연희전문(연세대) 문과 출신의 뜻심 좋은 출판인이었다. 뒤에 조선출판문화협회 결성을 주도한다. 해방동이인 고려문화사는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환의 동생 유명한(柳明韓)에 의해 설립됐는데, 인쇄공장을 따로 두어 한창 때는 인쇄공만도 200여명을 두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고려문화사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편집이사 김창집(金昌集)과 부이사장 이강림(李康濂)이었다. 김창집(1902-1966)은 뒤에 최영해 등과 '조선출협' 결성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위원장)이 되며, 이강림(1906-1990)은 국민음악연구

### 출판협회 50주년 기념 엠블렘 제작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엠블렘을 제작, 배포한다. 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대표 강우현)이 도안한 이 엠블렘 디자인은 아라비아 숫자 '50'과 영문자 'BOOK'을 합성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 창립 50주년을 나타내고 있으며 붉은 색을 기본으로 청·록·황 등 3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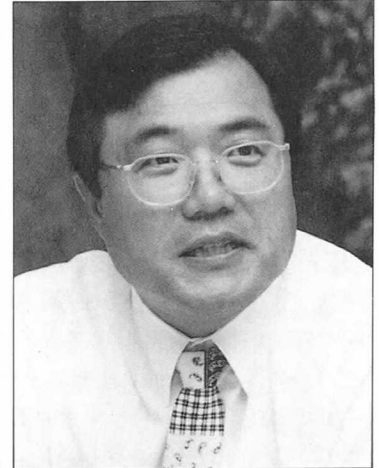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판산업의 개성과 다양성을 묘사했다. (735-2701)

## 21세기는 불확실성의 미래인가

강경중

(주)뿌리와날개유통 대표이사·출협 상무이사



강경중 사장.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 일컫는 정보흐름은 출판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변화다. 정보화가 출판의 ‘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다.**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이 불확실성과의 조우에서 불안해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지만 출판인들은 곧 다가올 21세기를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와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도도한 변화의 흐름은 때로 출판인들에게 아주 위협적이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행동양식은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명확하게 객관화해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일이다. ‘공동체적인 생존’은 그래야만 가능하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변화흐름은 크게 세 가지이다(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첫째, 자연보전과 환경보호의 문제, 검색의 문제, 보존의 문제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형태의 변화’이다.

둘째, 멀티미디어의 시대를 맞아 ‘매체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생존을 위해 연합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정보의 공급자와 수용자의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한다. 셋째, 수요자의 욕구가 변하고, 상품과 시장의 상황이 바뀌어간다. 따라서 상품의 유통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고 일컫는 정보의 흐름은 출판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변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변화의 주변에만 머물 것인가. 출판현장에는 미디어 환경과 독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가시화된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도 동시진행형으로 돌진해오고 있다. 출판 유통도 예외는 아니다.

복잡다기하기로 명성이 높은 우리나라 출판유통에 대한 변화요구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높다.

과거 50여년간 독자-서점-도매점(총

회를 창립해 국내 굴지의 음악전문 출판사로 키운다. 좌파의 대표적인 건설출판사의 조벽암(趙碧岩)은 시인·소설가로 뒤에 ‘조선출협’에 가담, 부위원장이 되었다가 월북한다. 그에 대하여는 다시 언급기로 한다.

### 지식인들, 출판계에 대거 진출

출판사 설립이 허가제 아닌 등록제였기에 1945년말에 60여사였던 출판사가 1946년에 들어서서 경총 늘어나 150여사에 이르렀고, 각종 잡지도 140종이나 쏟아져 나왔다. 그 무렵, 해방된 조국에서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할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지식인들이 대거 출판계에 찾아들어 등우리를 튼 것도 출판사 급증의 한 배경인데, 1947년 출협의 제2대 사무국장을 지낸 강주진(姜周鎭, 전 중앙대 교수·국회도서관장)의 증언은 당시의 정황을 잘 전해준다.

“해방 직후는 무슨 책이든 낼 수 있을 만큼 출판의 자유가 허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별로 할 만한 일이 없던 지식층에게 아무런 기반없이 뛰어들 수 있었던 좋은 사업이란 바로 출판사였지요. 그래서 지식층들은 거의 출판업에 손을 댔고, 자연히 출판사가 늘면서 책들도 각양각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출판저널》 제49호, 1989. 10. 5)

그 무렵 출판업계의 두가지 큰 난점은 인쇄소난과 종이난이었다. 출판사와는 ‘바늘과 실’의 관계인 인쇄소의 수는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활자가 모자라 우리말 조판 인쇄능력이 뒤졌고, 조선서적인쇄·조선인쇄·협진인쇄 등 설비와 기술면에서 믿을 만한 인쇄소는 몇 안되었다. 출판사 가운데 한성도서·박문서관과 고려문화사는 자체 인쇄공장을 갖고 있었다.

용지난은 더 심각했다. 해방 직후에는 그런대로 남아 있는 재고용지로 얼마간 버틸 수 있었으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종 인쇄물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해방 직후엔 1연(連)에 60-70원 하던 갱지값이 이듬해에는 2만여원으로 폭등했고, 그나마 부산 안양 등지에서 생산되는 선화지도 연당 1만원을 웃돌았다. 그렇기에 지질은 조잡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선화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출판업계는 용지난, 인쇄재난에 인쇄비의 폭등

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렸다.

그런 중에도 출판활동은 위축되지 않아서 1946년 신간발행량은 552종에 이르렀다(《대한민국 통계연감》, 내무부 통계국, 1955). 그러나 이 숫자는 공식적인 집계일 뿐 실제로는 1천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뒤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정음사의 최영해는 45년 8월~46년 9월까지 1년 남짓 기간의 출판경향을 한마디로 “정치사상 팜플렛 시절”(《출판계의 회고와 전망》, 《출판대감》, 1949. 4)이라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김창집은 “당시 공산계열의 간행물은 선동적이었고 민주계열의 간행물은 계몽적이었다”(《해방 10년간의 출판계》, 《출판연감》 1957)고 회고했다.

### 해방 4개월만에 ‘출협’ 결성 움직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태초에 혼돈’만이 있었던 출판업계에 ‘질서잡기’를 위한 조직화 움직임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 첫 봉화는 해방되고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45년 12월 10일에 올랐다. 그 소식을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출판문협(出版文協)위원 선출-서울의 60여 출판업자와 잡지사 대표자들은 지난 10일 군정청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開)하고 여러가지로 토의한 끝에 용지문제에 대한 군정청과의 교섭, 해방조선의 출판문화 건설을 위한 출판문화협회 기성회 조직을 결의한 후 다음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정음사, 조선춘추사, 서울주보사, 조선주보사, 동광당서점, 건설사, 고려문화사, 신문예사, 서울신문사, 자유신문사, 인민사, 한성도서주식회사, 박문서관”(《동아일보》 1945. 12. 28)

출판인들이 협회 결성을 위한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한 45년 12월 10일은, 그때까지 문화단체로는 유일했던 ‘중앙문화협회’(김광섭 이현구 등)가 결성(9.16)된 지 3주만이였다. 출판인들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는 언론·문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그러나 ‘출판문협’이 정식으로 출범하기까지는 아직 1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 이승우 편집주간

판)-출판사로 이어져온 우리나라 출판정보유통의 다단계 채널은 곧 독자-출판사(IP: 정보제공자)나 서점-출판사로 단순화될 것이며,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출판정보는 활발하게 공유될 것이다. 독자와 출판사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독자들로부터 단계별 벤치마크의 검증을 받아가며 함께 수요가 확실한 책을 만들 수 있다.

주문정보가 아무리 신속정확하게 전달돼도 주문한 책이 늦게 도착한다면 유통정보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출판유통에서 정보유통과 물적유통의 결합은 JIT(Just In Time 주문 즉시 전달, 유통에서의 무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가 거듭된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받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출판과 출판유통의 미래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유통표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인 연결성(Network)·동시성·저장성·공유성·미디어 변환 쌍방향성 등의 지원을 받아 그 변화는 컴퓨터 세대들에 의해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쯤 정보화가 출판행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전으로 수렴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한국출판정보통신으로 그 정치작업을 이미 시작했고, 도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라인업을 끝내고 이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